

수동 구문의 통사·의미론적 고찰

고 경 환
(제주대학교)

Koh, Kyung-whan. 2005. A Syntactico-Semantic Survey of Passive Constructions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2(1), 27-47.

In English there is, as in many other languages, a useful grammatical category called active and passive voice. This article will investigate some syntactic and semantic properties of English passive constructions. From a syntactic point of view, most active sentences with transitive verbs (NP_1 -Vt- NP_2) can be transformed into passive ones (NP_2 -be+Ved-by+ NP_1), though there are some constraints which do not allow the passivization of active sentences: the constraints of verbs, agents, and meanings, etc. The passive sentences serve the following functions: (1) not to express the agent due to several reasons, (2) to put old and new information in the appropriate positions in the sentences, or to make the agent prominent as new information by putting it in the focused final position (namely, the 'principle of end-focus'), and to put old information as a theme in the initial position, and (3) to put heavier elements in the final posit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end-weight.'
(Cheju National University)

1. 머리말

태(voice)라는 문법범주는 타동사가 만드는 문장에서 주어가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event)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 행위의 영향을 받는 것이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 방식이다. 다시 말하자면, 주어가 동작을 행하는 방식으로 나타낸 것을 능동태라 하고, 영향을 받는 방식으로 나타낸 것이 수동태이다. 영어에서 능동태와 수동태 문장 구조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에 두 개의 참여자(주어와 목적어) 중 어느 하나를 메시지의 출발점으로 삼아 이것을 주체로 삼고 다른 하나를 문미에 놓이게 하여 초점을 받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능동태와 수동태라는 태의 대립 관계는 단순히 변형상의 차이에 불과한 변이(variation)를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능동태와 수동태는 단순히

특히 수동태 문장은 능동태에서 반드시 표출되어야 하는 동작주(agent)가 표출되지 않아도 되며, 그로 말미암아 언어 사용이 한층 더 편리하고 간결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The window was broken.*의 경우와 같이 *by* + 동작주 부분이 생략되었을 때 <*be* + 동사의 과거분사형>이라는 구조를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담화상의 맥락에 의해 의미를 잘 파악하지 않는다면 애매성을 초래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능동태와 수동태의 통사적인 대응 관계와 이에 따른 의미 관계는 물론, *by* + 동작주의 유무에 따른 구조적 차이, 그리고 담화상에서 수동태가 쓰이는 상황 등에 초점을 두고 이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능동태와 수동태

2.1. 구조적 차이

대개의 경우에 영어에서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행위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점을 능동태와 수동태라는 방편을 이용하여 나타내면 이 두 가지 문법적인 장치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명제 내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진다.¹⁾ 예컨대 다음과 같이 능동태와 수동태로 나타난 이 두 문장은 누가 돕는 행위를 하고, 누가 돕는 행위의 영향을 받는가 하는 점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John helped Peter.

Peter was helped by John.

- 1) 문장 구조적으로 수동태 구문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구조적으로는 능동태이면서 어휘상으로 수동적인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예컨대 *He rang the bell.*이라는 문장에서 목적어를 주어로 삼고, 동작주를 내세우지 않는 이른바 능격동사(ergative verb)가 사용된 문장 *The bell rang.*에서 수동적인 뜻이 나타난다. → Palmer, F. R. (1987: 90). 이러한 문장 구조를 Celce-Murcia & D. Larsen-Freeman(1999: 350)은 '중간태'라 부르고 있다. -- There is, in fact, a "middle voice," intermediate between active and passive voices. The middle voice allows the subject of a sentence to be nonagentive, as in the passive voice, but the morphology of the verb to be in the active voice.

또한 형식상으로는 능동태 문장이지만, 부사적 요소를 수반하여 동사와 관련된 주어의 속성을 나타내는 수동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들에 대하여 Palmer(1987: 92)는 'adverbial' passives라고 부르고 있다. 이런 문장을 *activo-passive* 또는 *pseudo-passive*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These shirts wash well.

이처럼 기본적인 명제 내용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 두 문장의 구조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술어동사구의 측면에서 보면, 능동태는 단순 동사형으로 나타나고, 수동태에서는 be + 과거분사라고 하는 복합 형태로 나타난다.

능동태와 수동태의 구조로 나타나는 이 두 문장을 통사론적으로 보면, 이 두 문장에 묘사된 사건에 나타난 참여자(participant) John과 Peter는 서로 대응하는 두 문장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즉, 능동태 문장에서 John과 Peter는 각각 주어와 (직접)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에, 수동태 문장에서 이 두 참여자는 각각 전치사 by의 목적어와 문법적인 주어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기능상의 변화에 따라 위치의 변화가 수반되고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이항동사(ditransitive verb)가 두 개의 목적어를 수반하는 문장에서도,

John gave Peter the job.
Peter was given the job by John.

능동태 문장에서 Peter는 간접목적어 역할을 하며, 수동태 문장에서 이것은 문법적인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두 쌍의 문장을 통해서 보면, 태의 대립에 따라 절의 수준에서 참여자들의 위치에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의미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앞서 말한 문법적인 요소들이 전형적으로 의미론적 역할, 즉 동작주(agent), 수동자(patient), 그리고 수용자(recipient)라는 역할과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 세 가지 참여자 역할은 통사론적으로는 각각 주어, 직접목적어, 그리고 간접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히 능동태의 주어, 즉 동작주가 수동태 문장에서는 by + 동작주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동작주는 술어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을 유발하는 유생/무생적 참여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다음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작주가 인간명사구 이외의 것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²⁾

The storm uprooted hundreds of trees.
~ **Hundreds of trees were uprooted by the storm.**

이번에는 능동태와 수동태라는 두 구조를 담화적인 측면에서 보기로 하자.

능동태와 수동태의 대립 관계에 있어서 능동태 형식으로 표출된 문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출발점인 주제(theme)는 동작주 주어(subject agent)와 일치하는 것이고, 반면에 동작의 영향을 받는 수동자인 목적어는 ‘문미 초점’의 원칙(principle of end-focus)에 따라 문미에 놓여 초점을 받는 요소가 된다. 그리고 주어로서 주제 역할을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는 주제에 대한 제술(rheme)이 된다. 이 문장이 수동태 구문으로 바뀌게 되면 이러한 대응 관계에 변화가 생기게 마련이다. 즉, 수동자는 메시지 전달의 출발점으로 문장의 주어이면서 동시에 주제 역할을 하고, 동작주는 by와 결합해서 문미에 놓여 초점을 받는 요소가 된다. 이러한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능동태 문장과 수동태 문장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언어 사용자로 하여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을 어느 한 가지로 배열함으로써 결국 신정보로 나타나는 부분은 문미 위치에 놓이게 하고, 구정보로 여겨지는 요소는 문두에 놓이게 한다. 따라서 언어 사용자는 문장에서 두 개의 중요한 위치, 즉 문두와 문미 위치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

2.2. by + 동작주

그런데 능동태에서 문법적으로 주어 역할을 하는 동작주가 수동태에서는 ‘by + 동작주’라는 구조로 나타나거나, 이 부분이 표출되지 않기도 한다.³⁾

특히 수동태에서 정보의 전달상 동작주에 해당되는 부분이 신정보로서 청자/독자들에게 중요한 정보 내용일 경우에는 반드시 문장 표면, 즉 문미에 나타나야 한다. 즉, 담화상에서 이전의 말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이 다음에 말하는 내용에서 재차 언급되면 그것은 이미 구정보가 되기 때문에 문두에 놓고 대신에 그 문장에서 새로 언급되는 내용, 즉 신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이 중요한 전달 내용일 경우에는 반드시 문장의 표면에 나타나야만 한다. 예컨대 *Ploughs are pulled by tractors, or in some countries by oxen.*과 같은 문장은 쟁기를 주제로 하여 이것을 끄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신정보로서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표출되어야만 한다. 다음과 같은 예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다.

3) ‘by + 동작주’ 표현이 수반된 수동태를 long passive(Culicover, 1982: 185) 또는 long passive(Biber

Character is the crystallized habit, the result of training and conviction. Every character is influenced by the heredity, environment and education.

I was a young Columbia man while I worked in a cafeteria from 6:30 A.M. to 3:00 P.M. I was much respected by the management, even though I drove the people I worked with insane, because I had standards they couldn't cope with.

For example, in 1960 French automobile workers attempted to destroy a new computer. Why? Because the computer had been used by the employer in determining which workers would be unemployed and sent home during a period when business was poor.

더욱이 동작주가 생략되면 일종의 '정보의 공백'으로 말미암아 정보의 전달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요소에 의해 보충되지 않는 한 by + 동작주는 문법적인 문장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기도 한다.⁴⁾ 예컨대, 'The ceremony was preceded. 만으로는 충분한 의사 전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by a minute's silence 따위와 같은 동작주가 문장 표면상에 표출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예들도 동일하게 설명되는 문장들이다.

This school is maintained by a charity.

His attitudes were shaped by early experiences.

Passive voice verbs begin with the copula verb *be*, which is followed by the main verb in its past participle form.

능동-수동의 관계를 능동태의 주어가 수동태에서 동작주가 되는 것으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The boy was killed. The thieves were caught. 따위와 같은 문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작주가 표출되지 않는 예들이 대단히 많다.⁵⁾ 특히 동작주가 표출되지 않은 수동태 문장은 화자/독자에게 누가 행위를 했느냐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점은 능동태 문장에서는 동작주가 반드시 표출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하면 수동태를 사용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동작주는 이해되거나 암시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He was killed. 라는 문장이 He died나 He lost his life. 와 같은 문장이 서로 다른 문장으로 구별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4) ... Agentless passives are a most useful device for not providing irrelevant or undesirable part of the information. However, the agent may not be omitted if it provides an essential part of the information. — Palmer, F. R. (1987: 79).

5) Quirk et al.(1985: 164)은 대충 다섯 개의 수동태 문장 중 네 개의 경우에 by + 동작주가 나타

특히 수동태 문장에서 by + 동작주가 나타나지 않게 되면 필연적으로 다른 요소가 문미 초점을 받게 된다. 즉, 동사, 부가어, 또는 보어와 같은 요소들이 초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Downing, A. & P. Locke, 1992: 254). 가령 동사가 초점을 받으려면 여기에 주된 정보가 깃들여 있어야 하며, 동작주는 표출되지 말아야 한다.

This must be seen to be believed.

No details were relieved.

Don't sit on that bench; it **has just been painted.**

특히 분열문에서는 동사를 초점 요소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수동태는 동사에 초점을 두기에 적절한 구문 형식이 된다.

이 이외에 많은 수동태 문장의 경우에 부가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가 초점을 받는 문미의 위치에 놓일 수 있게 된다.

He was taken to jail.

Nothing has been heard of him for months.

The letters had been sent **unstamped.**

He was appointed **head of the research laboratory.**

Membership is limited to the **over 65s.**

The retiring chairman was presented **with a gold watch.**

3. be + 과거분사 구조의 분석

be + 과거분사의 형태가 모두 수동태 구조는 아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는 by + 동작주가 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화상의 맥락을 통해서 be + 과거분사의 구조가 '동적'(dynamic)인 해석과 '상태적'(stative) 해석 중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대개 그 뜻이 명확하다.

They **were married**, but they acted like boyfriend and girlfriend. (상태)
(= 'They were in the state of marriage, but ...')

They **were married** in a beautiful garden. (동작)
(= 'Someone married them ...')

동작주 표현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 **be + 과거분사**의 구조에서 과거분사가 수동 동사로서 수동태를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be 동사** 다음에 놓인 과거분사형이 일종의 분사 형용사로서 보어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 구조와 의미가 불분명하게 된다. 결국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이 문장에서 **was broken**은 두 가지 해석(깨져 있는, 깨졌다)이 가능하다.

3.1. 순수 수동태: 동작 수동태

by + 동작주 부분이 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담화상의 맥락으로 미루어 보아 **be + 과거분사**의 구조가 의미 해석과 문장 분석상으로 순수 수동태 (true passive) 문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Our application for visas **was refused**.
 His plan **was rejected**.
 My surfboard **was stolen**.
 Chinese food **is often served** with rice or noodles.
 The riot **was brought under control** without loss of life.

즉, 이러한 문장들은 행위나 과정을 나타내는 일종의 동작 수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에는 **by + 동작주** 부분을 첨가시킬 수 있으며,⁶⁾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능동태 문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The windows were broken by the force of the explosion.
 ~ The force of the explosion broke the windows.

동작 수동태에서 과거분사 형태는 정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면 (very) much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His work **is not much read** nowadays.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has been much exaggerated** in the press.
 Although always helpful, he **was not much liked**.

동작 수동태에는 표출된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간 부사어구를 첨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 부사어구는 곧 **be + 과거분사**의 구조가 상태를 나

타내는 것이 야님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다.

Air attacks were carried out **last night** on three major towns in the area.
 The murderer was arrested **yesterday**.
 His bills are paid **regularly every month**.
 Our roof was damaged in **last night's storm**.
 My grandfather was hanged for conspiracy in **1845**.

또한 상태 수동태의 경우와 달리, 진행 수동태로 표출하여 동작의 진행을 나타낼 수 있다.

The old house is being renovated.
 Many dated expressions are being dropped from the new dictionary.
 He felt he was being pressurized to resign.

3.2. 형용사적 수동: 상태 수동

be + 과거분사가 수동태 문장의 동사형으로 분석되지 않고, be 동사는 계사(copula)이고, 과거분사형은 소위 분사 형용사(participial adjectives)로서 be 동사의 뜻을 보충해 주는 보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문법에서 흔히 상태 수동태라고 하는데, 의미상으로 이런 수동태는 이전의 어떤 행위의 결과를 강조하는 뜻으로 해석된다.⁷⁾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상태 수동태는 의미론적으로 완료 수동태 형식과 동등한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The doors **are locked**.
 = The doors **have been locked**.

통사론적으로 이런 경우에 be + 과거분사의 구조를 상태 수동태로 분석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이 과거분사형이 '형용사적'인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be 동사 다음에 동사의 과거분사형이 분사형용사⁸⁾로 쓰였고, 아울러 그것

7) Swan(1995: 414)은 build, cut, pack, close 따위와 같은 동사들은 행위가 끝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동사이며, 이들의 과거분사가 be 동사와 같이 쓰이게 되면 상태 수동태로 해석될 수 있는 반면, push, live, speak, hit, carry와 같은 동사의 과거분사형은 이런 뜻을 나타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8) 예컨대 the broken window, a stolen necklace, unfinished business, a tattered coat, bleached hair

이 정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면 rather, quite, somewhat, more, most, too, very 따위와 같은 강의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I tried to collect my thought but **was too excited**.

They **were very interested** in your plans.

Your work is **highly regarded**.

The girl **was quite overwhelmed**.

이처럼 분석되는 상태 수동태에서 과거분사는 기술적(descriptive)이고, 상태적이기 때문에 형용사적으로 쓰인 것이라고 한다.

또한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와 달리, 상태적인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속이나 완료를 나타내는 부사어구가 첨가될 수 있지만, 동작 수동태에 수반되는 immediately와 같은 부사어구를 참가시킬 수 없다.

They **were still married** when I last saw them.

His bills **are already paid**, so he owes nothing now.

He **was immediately surrounded** with many people.

과거분사가 be나 get 따위와 같은 동사 이외의 전달하고자 하는 뜻에 따라 appear, become, lie, look, prove, remain, seem, sound 따위와 같은 계사 다음에 놓여 보어가 될 수 있다.

John **seemed relieved** to hear from us.

This kind of work is **becoming increasingly specialized**.

She **lies buried** now in a little churchyard by the sea.

They didn't live together but they **remained married**.

이처럼 be + 과거분사가 동작이나 과정을 나타내는 수동태로 해석되지 않고, 상태 수동태로 취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by + 동작주 표현을 첨가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능동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문장은 상태 수동태의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동작 수동태가 갖는 성격의 하나인 동작주가 표출되고 있다.

He **remained too embarrassed by their behavior** to acknowledge that he was their son.

는 too가 수반되고 있어서 형용사가 만드는 상태 수동적으로 분석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by + 동작주가 표출되고 있어서 동작 수동태적인 성격도 보이고 있다.

4. 수동태의 제약

담화상에 있어서 응집 관계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수동태라는 매우 유익한 문장 구조가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타동사가 있는 문장은 능동태나 수동태 문장으로 표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두 가지 유형의 문장이 여러 가지 제약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체계적으로 1:1의 대응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4.1. 타동성의 문제

대체로 수동태 문장으로 전환하려면 술어동사가 반드시 타동사라야 하며, 동시에 언급되는 내용이 동적인(dynamic) 것이라야 하며, 더욱이 언급되는 내용이 동작주(대체로 사람)가 통제할 수 있는 행위 또는 과정 등을 가리키는 것이라야 한다.⁹⁾ 예컨대, 다음과 같은 문장에 나타난 수동태들은 모두 동적인 뜻을 나타냄과 동시에 동작주에 의해 통제가 가능한 것이다.

The firm **has been greatly expanded** by the new manager.

The opposition leaders **were liquidated** on the orders of the dictator.

Tools **are being developed** to help do away with the poisonous gases thrown off by our millions of motor vehicles.

이처럼 능동태의 목적어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 일종의 타동성(transitivity)을 갖기 때문에 수동태로 전환될 수 있다.

설령 타동사가 쓰이고, 주어가 행한 동작의 영향이 목적어에 미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주어가 특정한 것일수록 수동태 문장의 용인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즉, 이전의 담화 내용에 나타난 목적어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음 문장

9) Some sentences are more transitive than others, depending in part on the relative agentiveness of

에 나타날 때 그것은 특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서 주제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This poem was written by Henry Wadsworth Longfellow.

이 문장에서 *this poem* 대신에 부정 명사구 *poems*와 같은 막연한 대상을 뜻하는 비한정 명사구(*indefinite noun phrase*)가 특정한 대상과 관련해서 쓰이는 슬부를 수반하게 되면 적절한 뜻을 전달하는 문장을 이루지 못한다.

반면에 똑같은 동사가 쓰인 문장일지라도 능동태의 동사가 행한 동작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면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예컨대 *A strange-looking man approached her.*에서는 어떤 이상하게 생긴 남자가 그녀에게 접근함으로써 그 여자는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동태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He approached the station.*의 경우에는 그가 정거장에 다가가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정거장이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으므로 수동태로 전환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동작주의 영향이 미치는 과정을 나타내지 않는 다음과 같은 능동태 문장에 대응하는 수동태 문장은 불가능하다.

The country has changed its appearance.

The hurricane has now reduced its speed.

또한 목적어에 어떤 행위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는 점을 뜻하는 경우에도 수동태로 전환시키지 못한다. 이 경우에도 주어가 행한 동작의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Mabel has inherited some money.

John received an anonymous letter yesterday.

다음과 같은 예에서도 목적어에 가해지는 행위를 나타내느냐, 하나의 사건을 나타내느냐에 따라 동일한 동사일지라도 수동 변형의 가능성에 차이가 생긴다.

Jill has caught a cold.

~ **A cold has been caught by Jill.*

The police have caught the thieves.

~ *The thieves have been caught by the police.*

수동태 문장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며, 이런 특성을 가진 동사들을 중간동사(middle verbs)라고도 한다.

This bucket **contains** petrol.
 I **have** no answer to that.
 Bill seems to **lack** confidence.
 The auditorium **holds** eight hundred people.
 He **resembles** his grandfather.¹⁰⁾

이런 동사들 중에 일부의 경우에는 '활동'의 뜻을 포함하게 되면 수동 변형이 가능하다.

The city **was soon possessed** by the enemy.
 The thief **was held** by the police.
 He **is equalled** by no one in kindness.

경험자(experiencer) 주어에 감각동사들이 수반된 문장들은 수동태 변형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다소 제약이 따른다.

The employees **heard** the explosion.
 ~The explosion **was heard** by the employees.

The guests **smelled** smoke.
 ~ ?Smoke **was smelled** by the guests.

Three students **saw** the accident.
 ~ The accident **was seen** by three students.

경험자 주어에 심리동사(psych-verbs)가 수반되는 능동태 문장들은 수동태 문장으로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까닭은 주로 이들에 대한 목적어가 상대적으로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의 영향을 받는다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Mary **wants** this book.
 ~ *This book **is wanted** by Mary.¹¹⁾

10) resemble은 상호동사라고 하여 A가 B에게, 또는 B가 A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동사로서 목적어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반면에 동사 marry는 She **married** him.에서는 상호동사이지만, The professor **married** them.의 경우에는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Mary **hated** the movie.

~ ?The movie **was hated** by Mary.

Orson **enjoys** romances.

~ ?Romances **are enjoyed** by Orson.

그러나 이상과 같은 예에서처럼 *me*, *Mary*, *Orson* 따위와 같은 일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한정 명사구(definite noun phrase)가 아니라, 비한정 명사구가 동작주로 등장하는 경우에는 수동태의 용인 가능성이 다소 높아진다.¹²⁾

The movie **was hated by everybody**.

She **is liked by the whole neighborhood**.

Tiny Tim **is loved by all**.

이와 같은 사실들은 문두의 위치와 문미 위치에 나타나는 문장 성분들이 갖는 정보상의 차이가 다르다는 점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주어로 나타나는 명사구는 전형적으로 술부에 속한 명사구보다 더 '특정한'(definite) 것이라야 한다. 그 까닭은 주어로 나타나는 명사구는 구정보, 즉 술부가 무엇에 대하여 말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반면에 문미 위치에는 신정보가 등장하기 때문에 부정 명사구가 이상적이라고 하겠다.

4.2. 의미상의 제약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따라서 언어 사용자가 자신의 기분에 따라 이 두 가지 문장 중 어느 것이라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두 가지 문장 형태 중 어느 한 가지만 사용할 수 있다. 바꿔 말하자면, 능동태와 수동태 문장이 항상 동일한 명제 내용을 갖는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numeral)나 양화사(quantifier)가 쓰였거나, 또는 총칭적인(generic)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수동태와 능동태 문장이 갖는 뜻이 다르다.

Everyone in the room **speaks two languages**.

~ **Two languages** are spoken by everyone in the room. (Chomsky 1965)

two languages가 능동태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막연한 어느 두 개의 언어를 뜻하는 것이라면, 주어의 위치에 놓여 주제 역할을 하는 수동태 문장에서는 예컨대 영어와 중국어 등 특정한 어느 두 개의 언어를 뜻하는 것이 된다.

양화사를 수반한 다음 문장을 보자.

Few people read many books.

~ Many books are read by **few books**. (Lakoff 1968)

few people이 주어 역할을 하는 능동태 문장에서는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소수라는 점을 말하는 것인 반면, 동작주로 by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수동태 문장에서는 많은 책들이 불과 몇몇 사람들에 의해 읽힌다는 뜻이 된다. 능동태와 수동태로 나타난 이 두 문장의 뜻은 각각 다음과 같이 풀어쓰게 되면 그 뜻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There are few people in this world who read lots of books.

There are many books that are read by few people.

이번에는 총칭적인 내용이 담긴 문장을 보기로 하자.

Moles dig tunnels.

~ Tunnels are dug by **moles**.

능동태로 나타난 첫 번째 문장은 모든 두더지들이 굴을 파는 습성이 있다고 하는 두더지의 일반적인 습성을 말하는 것이라면, 수동태로 나타난 두 번째 문장은 굴을 파는 것은 일반적으로 두더지들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뜻이 되어 세상의 일반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것은 곧 총칭적 어구가 주어의 위치에서는 전칭적(universal)인 뜻으로 해석되는 반면, 목적어나 동작주가 놓이는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전칭적인 의미가 없어진다는 사실에 기인한다(Quirk et al, 1985: 166). 따라서 능동태 문장에서 주어 위치에 있는 moles는 'all moles'를 뜻하는 것이지만, 수동태로 나타난 두 번째 문장의 주어 위치에 있는 tunnels는 총칭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범조동사가 포함된 능동태와 이에 대응하는 수동태에

(intrinsic) 의미와 외재적인(extrinsic)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뜻을 하나의 법조동사가 모두 가지고 있다. 예컨대,

John cannot do it.

~ It cannot be done (by John).

에서 능동태에서 can은 내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능력’을 나타내는가 하면, 이 문장을 수동태로 전환시킨 두 번째 문장에서 can은 외재적인 의미에 속하는 ‘가능성’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¹³⁾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법조동사가 포함된 능동태와 수동태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뜻의 차이가 생긴다(van Ek, J. A. & Nico J. Robat, 1984: 251).

You must have finished the job before five o'clock. [강제]

~ The job must have been finished before five o'clock. [논리적 필연성]

Will you respray my car? [요구]

~ Will my car be resprayed? [물음]

You may ask me any questions. [허가]

~ I may be asked any questions. [불확실성]

4.3. get-수동태

수동태 문장에서 be 동사 이외에 18세기 중엽부터는 get이 수동태 문장을 만드는 조동사¹⁴⁾로 문어체 영어에 등장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비격식적인 구어체 영어에서도 점차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Celce-Murcia, M. & D. Larsen-

13) 물론 can이 능동태와 수동태에서 모두 ‘능력’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Quirk et al. 1985: 165-66).

John can't be taught.

= 'It is impossible to teach him.' or 'He is unable to learn.' (가능성/능력)

~ She can't teach John.

= 'She is unable to teach John.' (능력)

14) get이 수동태 문장을 만드는 조동사로 쓰인다고 하지만, be 동사가 쓰이는 경우와 달리,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들 때에는 또 다른 조작어 do가 필요하다.

John got hurt in the accident.

~ *Got John hurt in the accident?

~ *John got not hurt in the accident.

Freeman, 1999: 345), 이미 끝난 행위의 결과인 상태를 나타낸다.

I **got lost** in the snow.

The soldier's legs **got entangled** with the ropes.

I went out without my umbrella and **got drenched** to the bone!

When you are reading something in English, don't look up every new word or expression or you will soon **get fed up**.

They **got mugged** by some teenagers.

통사론적으로 말하자면, get-수동태 문장은 얼핏 보면 be-수동태 문장과 상당히 비슷하다. 즉, 이 두 가지 수동태 문장에서 수동자(patient)는 문법적인 주어의 위치로 이동하고, 부가어의 위치로 떨어진 동작주는 생략되거나, 전치사 by의 목적어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수동태에서 크게 다른 점은 통제(control) 내지 의도(intent)의 문제와 관련된다.¹⁵⁾ 즉, 동작주가 be-수동태에서는 생략되더라도 표출된 사건에 대하여 목적 내지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get-수동태에서는 동작주의 통제력을 갖는 것은 주어 위치에 놓인 수동자이다. 다시 말하자면, get-수동태에서는 수동자 자신이 발생한 사건에 대한 부분적일지라도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get hit, get trapped, get snatched 따위와 같은 수동 동사구가 쓰일 경우에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부분적으로 주어인 수동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가 포함된 다음 두 개의 수동태 문장에서 엿보인다 (Givón, T., 1993: 67, vol. II).

John **was shot** by Mary *deliberately*.

(>Mary acted deliberately.)

(^>John acted deliberately.)

John **got shot** by Mary *deliberately*.

(<John acted deliberately.)

(^>Mary acted deliberately.)

즉, was shot ... deliberately의 경우에는 의도가 Mary에게 있는 것인 반면, got shot ... deliberately에서는 John이 일부러 Mary에게 총격을 받았다는 뜻이 된

15) 때로는 get-수동태가 다음 예에서처럼 화자의 달갑지 못한 태도를 반영하기도 한다(Quirk et

다. 이 두 가지 예는 수동자 주어에게 통제 내지 의도를 가질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수동자 주어로 나타난 a house가 이러한 힘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be-수동태는 가능하지만, get-수동태는 불가능하다.

A house can be built of stone, brick or clay.

*A house can get built of stone, brick or clay.

더욱이, 수동자 주어에게 통제 내지 의도가 없다고 여겨지면 설령 그 주어가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일지라도 사실상 get-수동태가 이상한 문장으로 여겨진다.

She was found wandering on the beach.

*She got found wandering on the beach.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e + 과거분사 형태가 두 가지 구조로 분석될 수 있는 것과 달리, get-수동태는 항상 '동작'을 나타내기만 할 뿐, 상태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He was married last year.는 작년에 이미 결혼한 상태라는 뜻이거나, 작년에 결혼했다는 등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반면, He got married last year.는 작년에 결혼했다는 동작의 뜻으로만 해석된다.

5. 수동태의 담화 기능적 용법

언어 표현은 상황을 따라 적절하게 선택해서 쓰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적절한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한 마디 말이나 글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생각될 수 있다. 능동태와 수동태라는 문법범주에 속하는 언어 표현의 경우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능동태와 수동태는 각기 쓰여야 할 상황에서 쓰이게 되는 것이다. 특히 다음과 같이 적절한 언어적 상황에서는 유표적(marked)인 수동태가 반드시 쓰여야 하거나, 또는 수동태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동작주가 특정한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일반적인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동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경우에 동작주는 people, we,

We cannot travel every path. Success must **be won** along one line.
 It is hoped that war **can be avoided**.
 Pineapples **are grown** in Hawaii.

담화상의 맥락을 통해 동작주를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수동태가 쓰이는 것이다.

No one can learn a foreign language without much practice. **This practice should be started** with listening and speaking first.
 Since that time, people who have had successful heart transplants have lived seven years or more. Kidneys and livers **have also been transplanted**, but, to date, the success rate for liver transplants is still very low.
 When the decay of inflections made it impossible to distinguish the gender of a noun in this way, the tendency to replace grammatical gender by natural gender **was accelerated**.

언어 사용자가 동작주가 드러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능동태의 주어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쓰이게 된다. 예컨대, 만일 화자 자신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하는 장본인이며,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준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동작주인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면 필연적으로 수동태라는 편리한 방안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All necessary information **will be sent** to you.
 An error **was made** in the budget.

There will be some redundancies as a result of the fact that new computer programs **will be introduced**.

만약 두 번째 문장을 능동태 문장으로 나타낼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화자 자신이 잉여 인력을 감축시킨다는 달갑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능동태의 주어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순간적으로 수동태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수동태에 대응하는 능동태 문장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The origin of the universe **will probably never be explained**.
 Rome **was not built** in a day.
 This matter **will be dealt with** as soon as possible.

Thousands of books **are published** every year and very few of them are noticed

The solar system to which the earth belongs **was formed** billions of years ago.

한편 담화상의 맥락을 통해 이전의 말이나 글에서 언급되었던 특정한 명사구를 주어의 위치에 두고, 이것을 보다 돋보이게 하는, 말하자면 이 부분을 주제화(thematization)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동태가 선택된다.¹⁶⁾ 특히 이렇게 함으로써 동작주가 문장 표면에 내세우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점이 생기게 된다.

Many people today think that philosophy is useless as compared with science, because **it cannot be applied** in the production of things.

To what degree human language is biologically conditioned and to what degree it is **learned** is one of the fundamental questions of linguistics.

The songs of some species of birds appear to be innate. **This question will be discussed** in Chapter 11, which deals with language and the brain.

이상과 같은 문장의 연속체에서 보면 담화적 맥락을 통해 문두 위치, 즉 주어 자리에는 바로 앞에서 언급된 명사구가 구정보로서 주제가 되어 놓여 있으며, 반면에 문미 위치에는 신정보에 해당되는 동작주가 전치사의 목적어로 놓여 초점을 받는다.

Many production-line tasks in car factories are now performed **by robots**.

These are survivors, people who find themselves in tough circumstances and bravely overcome them. They are struck down **by illness and catastrophe**, assailed **by grief and failure**, treated unfairly or betrayed.

이처럼 수동태를 사용하여 이전의 담화에서 언급된 명사구를 다음에 연결되는 문장의 주제로 삼게 되면 결국 어색하거나 비문법적인 문장이 생성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능동태와 수동태로 나타난 각 쌍의 문장 중에서 능동태로 표출된 첫 번째 문장보다 수동태 문장이 담화적인 기능에 있어서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When he arrived home **a detective arrested him**.

~ When he arrived home **he was arrested by a detective**.

When their mother was ill neighbors looked after the children.

~ When their mother was ill **the children were looked after by neighbors**.

16) As we've seen, using the passive voice is one way to have the *theme* argument in subject

수동태가 쓰이는 또 다른 이유는 이른바 '문미 중점'의 원칙(principle of end-weight)이라는 영어 문장의 일반적인 경향 때문이다. 만약 동작주에 해당되는 부분이 신정보이면 이 부분이 구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에 비해 보다 상세히 나타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결국 동작주가 신정보이기 때문에 문미에 놓이게 되고, 동시에 상세히 표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미 초점의 원칙과 문미 중점의 원칙은 서로 긴밀하게 관련되게 마련이다(Downing, A. & P. Locke, 1992: 253).

Already in Old English we find the beginnings of natural gender.... The gender of an Old English noun was often indicated by the form of an adjective or pronoun agreeing with it.

The American attitude toward manual labor and its effect on social distinctions in the United States might be illustrated by a recent incident that occurred in a newly opened dinner theater in Boulder, Colorado.

Furthermore, many discoveries are made by men whose scientific effectiveness came as a result of a combination of qualities.

Walkman is fascinating because it isn't even English. Strictly speaking, it was invented by the Japanese manufacturers who put two simple English words together to name their product.

6. 결 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능동태와 수동태라고 하는 두 가지 유형의 문장 구조는 용법상의 차이 때문에 유용한 문장 구조이다.

조건이 충족되면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변형이 가능하다. 즉, 능동태 문장에 쓰인 동사가 타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동사가 목적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꾸어 말하자면 주어가 통제 가능한 행위일 경우에는 대개 능동태 문장 형식을 수동태 문장 형식으로 변형이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물론 동작주의 선택, 의미 해석 등에 따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능동태와 수동태가 체계적으로 1:1의 대응 관계를 갖지는 않는다.

수동태는 언어 사용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문법적인 장치이다. 우리는 항상 동작주를 내세운 능동태 문장만 사용하지 않고 때로는 수동태 문장 형태로 표출해야 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 즉, 담화 기능적으로 볼 때 문미 초

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능동태의 주어틀 내세우지 않으려고 할 때 등 수동태는 능동태로 나타낼 경우에 비문법적이거나 적절치 못한 문장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참고문헌

- Berk, Lynn M. (1999). *English Syntax: From Word to Discours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elce-Murcia, M. & D. Larsen-Freeman. (1999). *The Grammar Book: An ESL/EFL Teacher's Course*. Heinle & Heinle Publishers.
- Declerck, R. (1994). *A Comprehensive Descriptive Grammar of English*. 東京: 開拓社
- Downing, A. & P. Locke.(1992). *A University Course in English Grammar*. New York: Prentice Hall
- Givón, T. (1993). *English Grammar: A Function-based Introduction*, vol. II.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Huddleston, R. (1984). *Introduction to the Grammar of Englis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ddleston, R. & G. K. Pullum. (2002),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cobs, Roderick A. (1995). *English Syntax: A Grammar for English Language Professional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almer, F. R. 1987. *The English Verb*. London: Longman.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 J.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Sinclair J. & G. Fox. (1990). *Collins Cobuild English Grammar*. London: Collins.
- Swan, M. (1995). *Practical English Us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van Ek, Jan A. & N. J. Robot. (1985), *The Student's Grammar of English*. Oxford: Basil Blackwell Limited.

고경환

690-756 제주도 제주대하로 66

제주대학교

E-mail: kosgroen@cheju.ac.kr